

(1) 총여학생회는 무엇이며,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한참 늦게 들어온다고 한데다 세다페 기획단 참여하겠다고 처음 총여학생회를 접했어요. 솔직히는 여성주의에 관심 없는 총여학생회에는 관심 없어요. 총학생회와는 전혀 다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같은 층위에서 얘기할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총학생회의 아래여서도 안된다고 생각하고요.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학생 사회에 개입하는 여러 활동을 하는 학생 자치 단체 정도로 생각하고 있나봐요. 그러면서도 명백히 대표성을 띠는 '총여학생회'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대표성이 단순히 여성 젠더인 학생들을 대변하는 것만으로 획득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해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할인을 해주는 것 말고는 뭘 하는지 알 수 없었던 제가 입학할 당시의 총여학생회처럼요. (그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임기가 두달 남짓 남았고, 잘 모르면서 이렇게 적어서 부끄럽네요.

(2) 총여학생회 집행부를 지원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

세다페 세미나를 하다가 이 던진 미끼를 덩석 물었어요. 문제 의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이랑 더 가까이 지내고 싶은 바람과, 세다페 기획단 활동 역시 더 가까이에서 열심히 하고 싶은 바람 때문입니다.

화이팅

· 자기소개 (우와)

게으르다. 문제의식. 책임감. 계속 공부할 자세. 예민. 끈대.

· 지원동기

대중 세운
속이안해도됨
< 흥터이지... >
중요위.
장애인권위원회
남후 연구, 여류정비
포럼과 매체
성폭력대책위원회

· 관심 있는 정책

— 세다페, 방어훈련, 우한봉

· 활동가능기간

영리

· 말고 싶은 일

정치국, 미디어홍보국, 재무국, 국제캠퍼스국, 생명보국

· 제안하고 싶은 사업

있는

· 매주 (화) 회의 참석 여부

연속 1시간

· 질문

“그냥” 사랑, “진짜” 여자

이누도 잇신의 2003년 영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하 <조제>)에 대한 이야기로 글을 시작하고자 한다. 나는 당시 애인의 추천으로 이 영화를 보게 되었다. 다음에 전개될 나의 이 영화에 대한 감상을 애인에게 말하자 그는 피로한 얼굴이 되었다. “그냥 사랑 애기로 보면 안 돼?” 나의 슬픔, 분노, 그리고 역겨움은 예민한 여자의 히스테리쯤으로 치부되었다. 남성 판타지의 재현물이 아닌 나 같은 여자도 남자 때문에 이런 고독한 순간을 겪곤 한다. 다만 나는 나의 고독을 아련한 사랑의 본질인 양 감상화(sentimentalization)할 생각이 없을 뿐이다.

대체 “그냥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 <조제>에는 세 ‘여자’가 등장한다. 남자 주인공의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 되는 여자(이케와키 치즈루 분)는 소녀 같고, 성 경험 없이 순결하고, 심지어 장애인이라 구원해주고 싶은 - 동시에 남자가 여자에게 이별을 고할 때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설정이다 - 그런 여자다. 영화의 마지막에 남자 주인공은 여자 주인공을 떠나 다른 여자(우에노 주리 분)를 만나는데, 그녀는 조금 덜 드라마틱한 소위 ‘현실적인’ 사랑의 대상이다. 물론 남자 주인공은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도 미래에 지장이 없지만, 그녀는 남자 주인공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아 제대로 취직도 못하고 길거리 판촉 행사에서 춤을 추고 있다. 마지막 여자는 남자 주인공과 섹스만 하는 여자다. 왜 등장했는지도 잘 모르겠는 그녀는, 셋 중 가장 말투도 거칠고, 머리도 짧고, 담배도 뻑뻑 피워댄다.

이런 명쾌한 구획이라니! 이런 구획을 가능하게 하는 ‘남성’의 시선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야 비로소 “그냥 사랑”은 가능해진다.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첫 섹스(물론 여자에게만 ‘첫 경험’이다.)장면이 압권인데, 여자의 초라한 하얀 속옷과 덜 자란 듯한 ‘푹푹한’ 가슴은 그녀를 순수성의 표상으로 만든다. 이어서 감격한 남자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고 있는 나는 형용하기 어려운 감정에 휩싸이게 된다. 이런 남자다운 로맨스 영화는 너무나 많다. 순수함이 퇴색되자 ‘쌍년’이 되는 폭력적 감수성을 김동률의 노래와 함께 아련한 추억으로 포장하는 <건축학개론>, 여성을 완전히 장악할 수 없는 남성의 슬픈 깨달음을 위해 여성을 영원한 타자의 영역(이를테면 컴퓨터 운영체제)에 놓는 <그녀(Her)>에 이르기까지 많은 ‘남자 영화’가 “그냥 사랑” 영화처럼 취급된다. 또한 이 이야기들은 대개 남성의 성장 서사에 여성을 밑거름으로 사용하는데, 많은 여성들이 쉽게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즉 여성들은 성적 대상으로 구획되고 소비되든 서사의 장치로 사용되든, 남성의 구획과 소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구조 하에 있다.

위의 영화들의 예는 우리가 성(性)과는 구분해 생각하고 싶어 하는 ‘사랑’이 결코 젠더/섹슈얼리티의 문제로부터 간단히 구분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바디우가 『사랑 예찬』에서 말하듯, “사랑이 차이에서 출발하여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라면 이 차이에서 젠더/섹슈얼리티의 문제를 탈각할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사랑을 감상화해 예쁜 장식품으로 소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랑 예찬이란 제목은 사실, 지금 우리의 사랑을 예찬할 만한 것이 되게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낭만적인 환상(이것이 보통 상품이 되지만)이나 상품을 예찬할 수는 없다.¹⁾

1) 사랑으로부터 여성 젠더 문제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이성애 중심주의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겠다. 필자는 분명 ‘이성애’에서의 ‘이성애자 여성’을 선택해 다루고 있다. 사랑을 “자연스럽게” 이성애로 치환한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선택’이었음을 밝힌다. 본고의 ‘사랑’은 지배적으로 재현되는 신

그렇다면 현재 “자연스러운” 것이라 여겨지는 “권력의 성애화”로부터 자유로운 여성, 그리고 그 여성이 주체가 되는 사랑이 가능할까? 문화산업에서 ‘진정한 여성’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 홀이 말했듯이 “대중 문화는 상품화되고 스테레오타입화하여, 우리가 가끔 잘못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여기서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 즉 우리의 경험의 진실을 발견할 수 없다 (……) 대중 문화는 엄청나게 신화적인 장이다. 이는 대중적 욕망의 무대이자, 대중적 판타지의 무대다.”²⁾ 그러므로 <조제> 식의 여성 재현이 여성의 본질이며,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홀이 바로 지적하듯, “바로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여 활용하기도 하고, (……) 맨 먼저 우리 자신에게 자신을 상상하고 재현하는 곳도 바로 여기다.”³⁾ <조제>의 여성 재현이 가능하게 하는 신화에서 완벽히 자유로운 여성이 진정한 여성이라는 생각은 여성 주체를 본질화한다.

“우리가 어떻게 구성되며 우리 자신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자신을 재현하고 상상하는 방식을 통해서 가능하다.”⁴⁾ 이는 그 외의 방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지, 재현과 상상이 우리를 완전하고도 온전하게 드러낸다는 뜻이 아니다. 할리우드 여배우 리즈 위더스푼이 인터뷰에서 말하길, “똑똑하고 멋진 6명의 여배우가 명정한 역할 하나 두고 싸우는 것을 보고 직접 영화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화 <나를 찾아줘(Gone girl)>가 제작되었다. 분명 <나를 찾아줘>의 여성은 명정한 아메리칸 스윗하트는 아니지만, 여성성이 무기인 팜프파탈의 그다지 신선하지도 않은 변형일 뿐이다.

영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대중매체에서 본인이 직접 말하는 경우도 그렇다. jtbc의 <마녀사냥>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섹스 칼럼니스트 광정은은 못 여성들의 멘토가 되었다. 그녀는 여성 입장에서 여성의 섹스와 연애에 대해 이야기해 공감을 샀지만, 동시에 “나는 예쁘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부단히 자기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사실 그녀가 많은 여성들의 공감을 산 이유도, 그녀가 “자기관리” 하는 여성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녀의 사례는 여성이 자신을 성적 주체로 재현할 때의 두 모습을 잘 보여준다. “첫째, 여성 자신이 스스로를 이성적이고 지배적인 남성 주체와 동일시하여 여성의 욕망과 에로티시즘을 권력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둘째, 대중문화와 소비 사회가 제공하는 여성적 즐거움, 쾌락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이다.”⁵⁾ 이를테면 그녀의, “땀 흘리는 남자는 언제나 옳다. 그것이 잔디 위에서든 침대 위에서든.”이란 말이 일례가 될 수 있다. 이 말은 사실 상대를 성적 대상화하는 권력의 우위에 자신을 놓는 말이기도 하지만, “잔디”와 “침대”의 이미지를 결합했다는 점도 흥미롭다. 잔디로 표상되는 스포츠는 결국 젊고 매력적인 육체의 소유자임과 동시에 경제력과 여유가 있는 남성만이 즐길 수 있는 것이고, 섹스 또한 그런 멋들어진 상품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멋진 남성과 섹스하는 자신의 가치 또한 올라간다.

딜레마다. 성적 주체인 여성으로서 나는 나에 대하여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나의 성적 욕망에 솔직하겠다고 입을 열면 성적 대상과 섹스 자체를 내 발 아래 두게 된다. 심지어 ‘섹스에 대해 말하는 젊은 여자’로 신선한 요깃거리로 취급되기도 한다. (“말하지 마라. 상상된다.”고 내게 말한 남성도 있었다.) 그렇다고 입을 다물면 “여자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하는 여자와 별 다를 바가 없어진다.(심지어 성폭력 경험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저 소리를 들었다.) 결국 재현의 맥락을 섬세히 살피고 치열하게 자기 성찰을 하는 수밖에 없다. 푸코는 ‘섹스’는 섹슈얼

화이자 상품인 ‘사랑’이기에 ‘이성애’라는 단어가 적합하지 않았다.

2) 스텐턴 홀, 「흑인 대중 문화에서 이 ‘흑인’이란 무엇인가」, 567p

3) 홀, 위의 책, 567p

4) 홀, 위의 책, 564p

5) 한국성폭력상담소, 『섹슈얼리티 강의』, 동녘, 1999

리티에 의해 고안된 것이기 때문에 '섹스'에 과도한 능동성을 부여하는 것은 잘못된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권력에 진정으로 저항하기 위해서는 섹슈얼리티의 전개에 대항해야 한다.⁶⁾ 이 글 또한 내가 나에 대하여 재현하고, 나아가 대항하는 방법이길 바란다. 그러나 또 아주 재미있는 점은, 나는 다음 강의를 들으러 가기 전에 신경 써서 화장을 하고 옷을 입을 거란 점이다. 이런 글을 쓰는 페미니스트가 심지어 못생기기까지 하면 너무나 쉽게 비하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토록, 현대 한국사회에서의 여성 주체를 가로지르는 젠더/섹슈얼리티의 문제는 다단하다.

6)위의 책, 48-49p